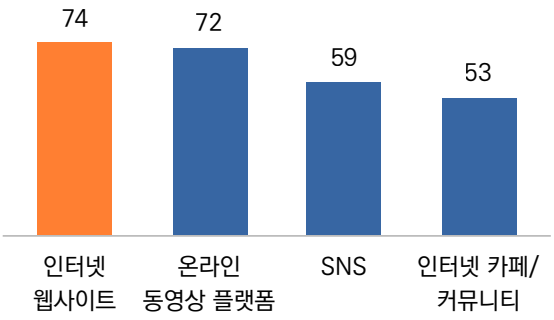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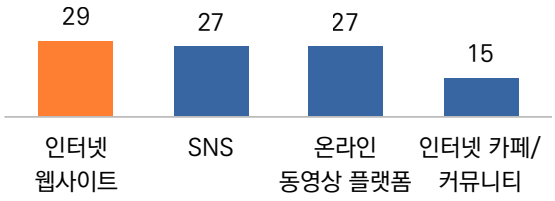
[한국인의 온라인 댓글 인식]
우리 국민 4명 중 3명, 웹사이트 이용 시 댓글 읽는 편!

- 2019년 10월 25일 가수 겸 배우 설리의 극단적 선택, 2020년 7월 여자 프로배구 고유민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대형 포털은 연예 뉴스와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도 중단했다. 댓글은 타인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익명성을 기댄 악의적인 의도도 있다. 우리 국민은 온라인 댓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.
- 인터넷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4명 중 3명(74%)은 댓글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10명 중 3명(29%)은 댓글을 직접 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.

[그림] 댓글 읽는 경험 (일반 국민, '항상+종종' 읽음 비율*, %)



[그림] 댓글 작성 경험 (일반 국민, 최근 일주일 기준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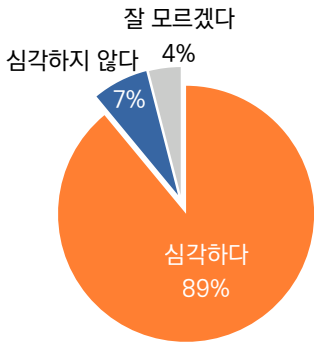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우리 국민의 온라인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', 2025.02.12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11.22. ~11.25.)
*모든 보기: 항상 읽는다, 종종 읽는 편이다, 읽지 않는다, 이용하지 않는다
Note) 본 조사는 온라인 패널이라는 온라인 사용자들을 전체 모집단으로 선정해 조사한 것임에 유의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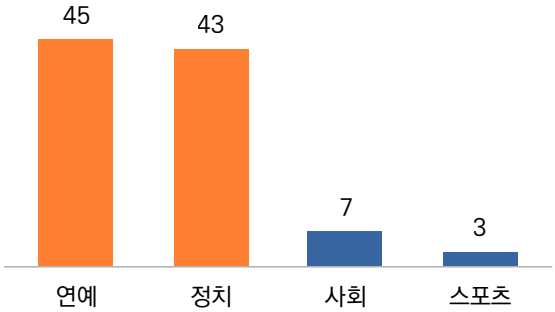
악성 댓글 가장 심한 분야, '연예와 정치'!

-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한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, 10명 중 9명(89%)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. 악성 댓글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'연예'(45%)와 '정치'(43%)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[그림] 악성 댓글 인식* (일반 국민)



[그림] 악성 댓글 가장 심한 분야 (일반 국민, 상위 4위, %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우리 국민의 온라인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', 2025.02.12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11.22. ~11.25.)
*4점 척도